

야 투수 첫 방어율 1위... MLB 삼킨 코리안 괴물

(2.32)

류현진, SF전 정규리그 마지막 등판 7이닝 무실점 시즌 14승
 日 노모 기록 '2.54' 24년만에 경신...야 선수 투수타이를 역대 네번째

류현진(로스앤젤레스다저스)이 정규리그 마지막 등판에서 무실점 역투로 역대 아시아 투수 최초의 평균자책점(ERA) 1위라는 새 역사를 창조했다.

류현진은 29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고 실점 없이 던졌다. 안타는 5개를 맞았지만,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해 한 점도 안 줬다.

류현진은 공 97개를 던졌고 땅볼 아웃을 9개나 유도해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종종 묶었다.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을 2.41에서 2.32로 낮춰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2.43)을 따돌리고 내셔널리그 1위이자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확정했다.

또 '토네이도'로 빅리그를 휘저은 일본인 노모 히데오가 1995년 세운 역대 아시아 투수 최저 평균자책점(2.54) 기록도 24년 만에 새로 썼다.

노모는 당시 그레그 맥덕스(1.63), 랜디 존슨(2.48)에 이어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3위에 올랐다.

아시아 선발 투수가 투수 부문 주요 타이틀을 차지한 건 탈삼진 부문의 노모(1995년 236개·2001년 220개)와 다르빗슈 유(2013년 277개), 다승 부문의 대만 투수 왕젠밍(2006년 19승)에 이어 류현진이 4번째다.

빠르진 않지만 정교한 제구 하나로 버틴 류현진은 아시아 투수 평균자책점의 신기원을 열고 화려하게 시즌을 마감했다.

2-0으로 앞선 8회 초 타석에서 대타로 교체된 류현진은 경기가 그대로 끝남에 따라 시즌 14승(5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2013년과 2014년에 달성한 시즌 개인

MLB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유력 후보 선수

	류현진 (LA 다저스)	제이컵 디그롬 (뉴욕 메츠)
평균자책점	2.32 MLB 전체 1위	2.43
승/패	14 / 5	11 / 8
선발등판수	29	32
이닝수	182 3	204
탈삼진	163	255
무실점 경기수	10	8
1자책점 이하 경기수	18	17

자료/MLB

최다승과 타이틀을 이루고 포스트시즌으로 향한다.

다저스는 시즌 105승(56패)째를 거둬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 경쟁을 정규리그 최종전으로 몰고 갔다.

특히 1953년 브루클린 다저스 시절 올린 팀 시즌 최다승과 66년만에 타이틀을 작성했다.

'베이브 류스' 류현진은 타석에서도 두 경기 연속 타점을 올리고 홀로 북치고 장구 쳤다.

류현진은 0-0인 5회 초 2사 3루에서 샌프란시스코 우완 선발 투수 로건 웨브의 시속 149km짜리 빠른 볼을 잡아당겨 깨끗한 좌전 안타로 3루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다. 류현진의 적시타는 결승타가 됐다.

류현진은 23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선 0-1로 끌려가던 5회 역전승의 물꼬를 튼 우중월 동점 솔로 아치로 빅리그 진출 후 첫 홈런을 터뜨렸다. 두 경기 연속 영양가 만점의 타점을 올린 류현진은 타율 0.157(51타수 8안타), 홈런 1개, 타점 3개로 올 시즌 타격을 마쳤다. /연합뉴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를 파크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무실점 호투로 팀의 2-0 승리를 이끌며 시즌 14승째를 챙겼다. /연합뉴스

방어율 1위 '양현종 드라마' 완성 전상현, 신인왕 '한걸음 가까이'

KIA, LG와 최종전 7-1 승 7위 마감
전상현, 9회말 등판 무실점 호투



KIA 타이거즈가 팬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선물하며 아쉬웠던 2019시즌을 마무리했다.

KIA는 지난 28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LG 트윈스를 7-1로 꺾고,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약속된 144경기의 여정을 끝냈다.

최종전 승리를 더해 62승 2무 80패(승률 0.437)를 기록한 KIA는 7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아쉬움의 시즌이었지만 KIA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와 함께 기쁨, 희망도 남겼다.

두 경기를 쉬었던 '에비 FA' 김선빈이 2번 타자로 선발 출전에 두 타석을 안타로 장식한 뒤 박수를 받고 물러났고, 올 시즌 KIA를 웃게 한 '젊은 마운드'가 마지막 경기도 깔끔하게 처리했다.

'에비' 박진태가 선발로 나선 이날 4회 1사에서 불펜이 가동됐고 임기준-박준표-하준영-고영창-전상현이 마지막 경기를 7-1 승리로 책임졌다.

특히 전상현은 마지막으로 '신인왕' 어필을 했다.

신인왕 후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LG 정우영과 전상현은 이날 나란히 마운드에 올랐다.

LG 정우영이 7회말 먼저 마운드에 올랐지만, 이 이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 정우영은 0.1이닝 2피안타 4사사구 4실점으로 흔들리면서 올 시즌 KIA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9회말 등판한 전상현은 헛스윙 삼진과 우익수플라이로 빠르게 두 아웃을 만들었다.

스트레이트 볼넷 이후 투스트라이크 노볼의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안타도 맞았지만 전상현은 침착하게 공 3개로 박지규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2019시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냈다.

양현종도 이날 평균자책점 1위를 확정하면서 환하게 웃었다. 지난 17일 NC를 상대로 시즌 마지막 등판을 했던, 양현종은 2.29의 평균자책점으로 시



전상현

즌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날 시즌 마지막 등판에 나선 두산 린드블럼이 5.1이닝 4실점을 기록하면서 양현종의 평균자책점왕이 결정됐다. 린드블럼의 최종 평균자책점은 2.50이다.

양현종은 "올 시즌 마지막까지 운이 많이 따른 것 같다. 린드블럼의 투구를 봤는데 컨디션도 워낙 좋았고 올 시즌 3관왕 할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가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투구를 했다"며 "(실점한) 6회 때 상대 한화 선수들에게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다. 나도 마지막까지 운이 따라서 좋게 마무리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초반 부진을 딛고 평균자책점 1위로 마감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응원해주신 팬들 덕분에 힘도 많이 났다. 힘들 때마다 가족이 뒤에서 많이 응원 해주 힘이 됐다"며 "팀 성적이 좋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즌, 많이 배운 시즌인 것 같다. 올 시즌은 이렇게 끝났지만 내년에는 나뿐만 아니라 팀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A는 시즌 최종전인 2020 신인선수 환영식을 열었다.

정해영, 박민, 홍종표 등 신인 11명은 코칭스태프와 임직원 상견례를 갖고, 경기 전 그라운드에서 팬들에게 인사했다. KIA 유니폼을 입고 자기 소개를 하고 포부를 언급한 신인 선수들은 부모와 함께 사구·시포 행사도 가졌다. /김여울 기자 wool@

자연환경·카멋진남·END·어벤져스 시원한 콜드승

9회 아모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 8강 진출팀 확정
광일리그, 에프나인·어벤져스 합류

- ◇무등기 3주 차 경기 전적
- 무등리그 16강전
- ◆1경기(5회 콜드승)
자연환경 14304-12
샌더스 20010-3
▲승리투수: 김만철
- ◆2경기(4회 콜드승)
카멋진남 1582-16
임동밭데리할인매장 0040-4
▲승리투수: 김상수
- ◆3경기(4회 콜드승)
BLACK 1000-1
END 3044-11
▲승리투수: 김종호 ▲홀런: 국준(3회 2점-END)
- 광일리그 16강전
- ◆1경기(6회 시간제한 승)
제로스타 112002-6
에프나인 21103X-7
▲승리투수: 진성수
- ◆2경기(6회 콜드승)
불독 005000-5
어벤져스 120711-12
▲승리투수: 신서현 ▲홀런: 신서현(2회 2타점 그라운드 홈런-어벤져스) 이건희(3회 그라운드 홈런-불독)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8강팀이 가려졌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9회 아모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3주차 경기가 29일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열렸다.

앞서 무등리그 16강전에서 대영토건, 원포인트이엔지, 태평법률사무소, 전대OB, 포비아구단이



29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제일고 야구장에서 열린 제9회 무등기 사회인야구 무등리그 16강 경기 카멋진남과 임동밭데리할인매장의 경기에서 카멋진남이 3-1로 앞서던 2회초 무사 주구원 타석 때 1루 주자 노규호가 도루를 시도해 성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승자가 됐다. 3주 차 경기를 통해 자연환경, 카멋진남, END가 무등리그 8강에 합류했다.

자연환경은 샌더스를 12-3, 5회 콜드승으로 제압했다. 1-0으로 앞선 1회말 자연환경이 2실점 했지만 2회초 바로 4점을 뽑으면서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3회에도 3점을 만든 자연환경은 5회 4점을 보태면서 콜드승으로 경기를 끝냈다. 선발 김만철이 3이닝 2실점 8탈삼진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박래준은 4안타 맹타로 공격을 이끌었다.

카멋진남도 임동밭데리할인매장을 상대로 16-4, 4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2회 5점을 뽑으며 기세를 올린 카멋진남은 3회 8득점으로 일찍 분위기를 가져왔다. 임동밭데리할인매장은 3회 4점을 추격했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카멋진남의 톱타자 노규호는 3안타 3타점 3득점 3도루로 공격의 전면에 섰다.

END도 BLACK과의 경기를 11-1, 4회 콜드승으로 끝냈다.

1회초 수비에 1실점을 했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바로 3-1로 승부를 뒤집은 END는 3회와 4회 각각 4점씩을 보태며 8강 티켓을 가져왔다. 3번타자 조양성이 3안타로 공격의 중심에 섰고, 5번타자 국준은 3회 투런포를 날리는 등 4타점을 수확했다.

광일리그 16강전에서는 에프나인과 어벤져스가 승자가 됐다.

에프나인은 제로스타와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7-6, 6회 시간 제한승을 기록했다. 경기 초반 역전과 재역전의 승부가 펼쳐졌다. 3-3에서 맞선 4회 한숨을 고른 두 팀의 승부는 5회말 에프나인이 3점을 뽑으면서 기울었다. 제로스타가 6회 2점을 만회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어벤져스는 투-타에서 맹활약한 신서현을 앞세워 12-5, 6회 콜드승을 거뒀다.

선발로 나선 신서현은 6이닝 5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고 타석에서는 2회 2타점 그라운드 홈런도 만들었다. 불독의 4번타자 이건희도 2타점 그라운드 홈런으로 3회 5득점에 기여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